

“사회 대개혁 향해 계속 전진, 계속 투쟁”

28회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 “잔존 적폐 세력 다시 공격, 투쟁 멈추지 말아야”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6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8회 범국민 추모제’를 열고 692명의 민족민주 열사와 희생자를 기렸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지회(갑을오토텍) 임원과 간부 등 조합원들도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추모제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열사 정신 계승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다짐했다.

김중배 명예 추모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진정한 추모는 열사의 뜻과 남은 자들의 뜻이 하나임을 확인하고 행동과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평등, 정의가 넘쳐나는 평화의 새날을 만들자”라며 열사들을 추모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유족 대표 인사말을 통해 사회에 남아 있는 적폐 세력들이 다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남수 회장은 “열사 정신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적폐세력이 감옥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고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의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날까지 쉽 없이 투쟁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대회 노조 케이비오토텍지회장은 금속노조 열사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대회 지회장은 “금속노조 열사들은 자본과 정권의 폭력과 탄압에 맞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항거했다. 노조 안에 열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해당 지회나 사업장의 문제로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대회 지회장은 “열사의 희생이

있어 오늘 우리가 민주노조 깃발 아래 투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모든 조합원이 함께 열사의 투쟁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자”라고 당부했다.

범국민 추모제 참가자들은 “촛불민의를 거스르는 적폐 세력에 맞서 완전한 적폐 청산과 노동법 개악 저지, 민중 생존권 쟁취, 사회 대개혁을 향해 계속 전진, 계속 투쟁하자”라고 결의했다.

추모제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은 692개의 영정마다 국화를 놓으며 열사 정신을 기렸다.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는 1990년 6월 1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민중민주 열사 희생자 합동 추모제 및 6월 항쟁 계승 국민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6월에 열고 있다.